

성경의 숲과 나무를 보는

Zoom in

민수기

이름 : _____

Zoom in Bible Study

줌 인 바이블 스터디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다)

민수기

1. 민수기의 **흐름**을 이해한다.
2. 민수기의 **메시지**를 이해한다.
3.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

일정 : 2021년 2학기
(온라인 강의)

[Zoom in 민수기] 강의계획서

	일시	강의내용	성경범위
1	1주차	Zoom in 인구조사①	민수기 1-4장
2	2주차	Zoom in 행진준비	민수기 5-10장
3	3주차	Zoom in 이스라엘의 절망, 그리고 희망	민수기 11-15장
4	4주차	Zoom in 광야 40년	민수기 16-20장
5	5주차	Zoom in 세대교체/발람 이야기	민수기 21-25장
6	6주차	Zoom in 인구조사②	민수기 26-36장

제 1 강 Zoom in 인구조사①(민 1-4장)

◎ 강의내용

민수기에서 ‘인구조사의 의미’와 ‘행진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공부한다. 인간의 논리라면 광야를 행진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행진 준비는 분명 사막에서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어야 한다. 가령 물과 양식을 구하는 방법, 작열하는 태양을 이겨내고, 밤의 추위를 견뎌내는 방법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행진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 민수기의 삼중구조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인 1-10장은 인구조사와 행진준비, 중반부인 11-25장은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구세대가 진멸되고, 신세대가 서게 되는 내용, 후반부인 26-36장은 신세대의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 정복준비가 이루어진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인구조사’와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민수기의 중심은 거역과 불순종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중심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도전이 됨에 틀림없다.

민 1-10장	민 11-25장		민 26-36장

2. 인구조사의 목적

‘민수기(Numbers)’라는 제목은 숫자와 연관이 있으며,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붙여진 제목이라 할 수 있다. 민수기의 전반부(1장)와 후반부(26장)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조사가 두 번이나 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인구조사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 민수기의 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 1장	민 26장
공통점	(민 1:3, 45) (민 1: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민 26:2)
차이점	이스라엘(민 2:2, 9, 17, 24, 31, 34)	이스라엘(민 26:52-56)
	레위인(민 1:47-54)	레위인(민 26:62)

3. 이스라엘의 결속력을 고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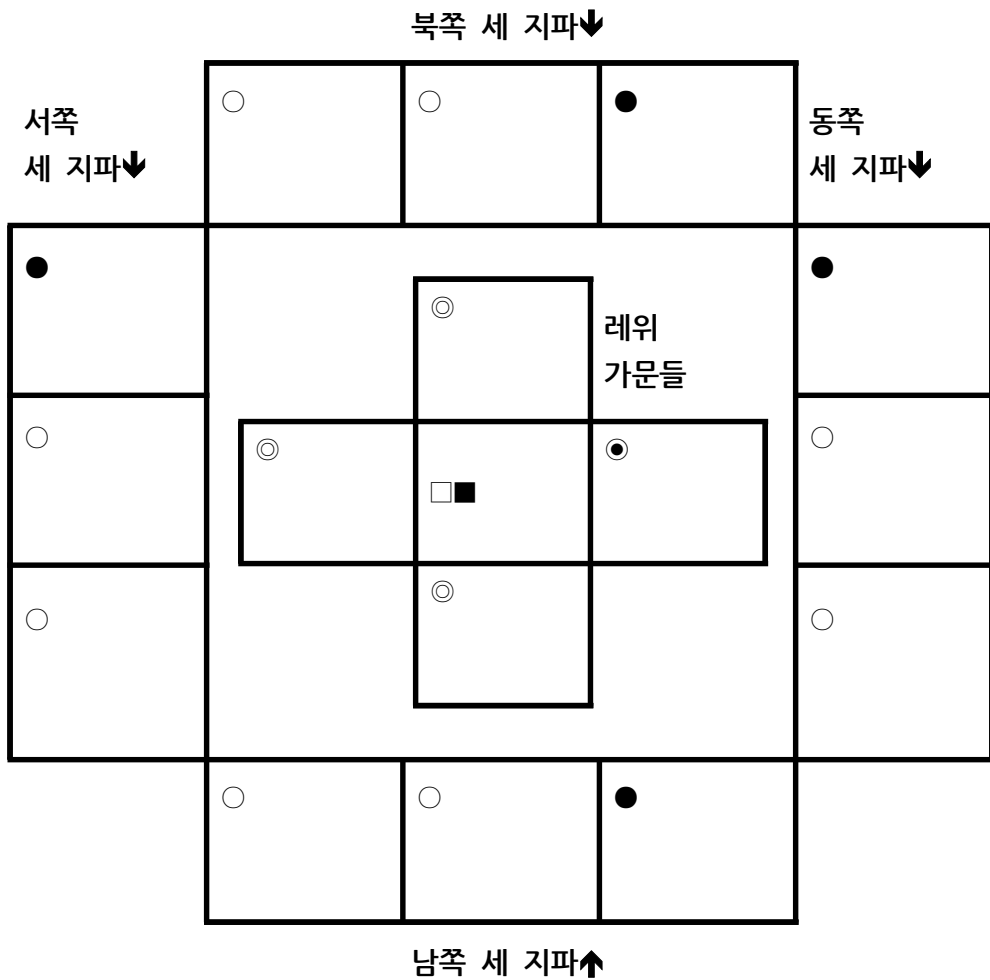
1) 야곱의 아내들과 열 두 아들들 - 탄생의 순서를 따라(창29:32-30:34)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 열두 지파는 한 아버지로부터 기원되었지만 네 명의 다른 어머니들에게서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레아	빌하 (라헬의 몸종)	실바 (레아의 몸종)	레아	라헬
아들들	1.	5.	7.	9.	11.
	2.	6.	8.	10.	12.
	3.				
	4.				

2) 인구조사를 위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의 배열 - 어머니를 따라(민1:1-19)

순서	탄생 순서	지파	우두머리 이름	어머니
1	1			
2	2			
3	4			
4	9			
5	10			
6	11			
7				
8	12			
9	5			
10	8			
11	7			
12	6			

3)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도(지파간의 결속력을 고려)(민1:20-54)



◎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손들 ◎ 레위 지파

○ 이스라엘 열두 지파

● 각 진영을 이끄는 지도자 지파

4. 이스라엘 진영 배치와 민수기의 구성

■ 1장 각 지파별 전쟁에 나갈 군인 계수(전쟁과 행진을 위한 목적)

- A. 2장 -
- B. 3장 -
- C. 4장 -
- D. 5장 -
- D'. 6장 -
- C'. 7장 -
- B'. 8장 -
- A'. 9-10장 -

광야(사막) 행진을 위한 준비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법, 물을 구하는 법, 낮의 태양의 열기와 밤의 추위를 극복하는 법, 사나운 짐승들과 해충들, 독사와 불뱀, 전갈의 공격을 막고, 갇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법에 대한 것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그 대신 성경은 광야를 통과하는 최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 광야를 행진하는 최고의 길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는가?(D-D')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행진 원칙과 인간의 광야행진의 원칙이 일치되기까지는 수많은 충돌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거룩한 삶은 그 모든 과정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지에 도착하여 복을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하나님의 방법(333)	인간의 수단(3333)
사막에서 살아남기		

제 2 강 Zoom in 행진준비(민 5-10장)

◎ 강의내용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주어졌다. 바로 거룩을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거치며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법과 정결규례들까지 삶으로 체화 시키는 것을 통해 거룩한 삶이 실현될 때 광야는 결코 삶이 불가능한 장소가 아니다. 이제 행진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레위기에서 배운 거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거룩으로 황량하고 거친 광야를 뚫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거룩의 실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될 것이다.

1. 행진 준비의 중심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행진준비의 중심에는 진을 정결하게 하는 규정에 대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민 5-6장) 레위기에서 배운 정결의 규례를 실제로 실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광야 행진의 필수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사막에서 살아남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점에서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1) 진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의 의미

1	민 5:3
2	민 6:5, 8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주하시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동일한 거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삶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레위기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민수기	내용	레위기
1	민 5:1-4		
2	민 5:5-10		
3	민 5:11-31		
4	민 6:1-21		
5	민 6:22-27		

2) 다섯 가지 규정

위 다섯 가지 규정의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준비인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1) 부정한 자들에 대한 규례(민 5:1-4)

(비교) 레 11-15장

(2) 속건제에 대한 규례(민 5:5-10)

(비교) 레 5:14-6:7

(3)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인에 대한 규례(민 5:11-31)

(비교) 레 18, 20장, 요 8:1-12

(4) 나실인 서원제도(민 6장)

	내용	의미
1	나실인 서원 자격 (민 6:1-2)	
2	나실인 서원 세 가지 규정 (민 6:1-8)	① ② ③
3	나실인 서원 무효 (민 6:9-12)	
4	나실인 서원 끝내는 규례 (민 6:13-20)	
5	나실인의 역사적인 예	(삿 13:3-5, 7)
		(삼상 1:5, 10-11, 14-15)
		(눅 1:5-7, 13-16)

(5) 제사장 축복(민 6:22-27)

중심의 마지막 결론에는 거룩한 삶을 실현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제사장을 통한 축복이다.

1	(6:24)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	(6:25)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3	(6: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하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숭고한 소명이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은 결국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전해야할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이들의 모범적인 삶은 이 축복의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반드시 이루어야할 소명의 완성이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행진의 원칙

1)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군대

출 1-11장	출 12:1-13:16	출 13:17-22
출 14장-민8장	민 9:1-14	민 9:15-23

이 과정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듯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이 변한 것이다.

***출 12:37-38, 40-41**

***출 13:17**

이들이 처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을 때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전쟁을 치를 군사로 정예화가 된 것이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셔야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나팔소리를 듣는 군대

나팔은 백성의 소집과 행진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만으로는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팔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순종의 내용이 주어진다. 나팔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제사장들이 분다는 점에서 진영의 중심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인 것이다. 즉,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민 10:1-8) - 제사장이 볼 것			
1	나팔 두 개를 불 때		
2	나팔 한 개만 불 때		
3	첫 번째 크게 불 때		
4	두 번째 크게 불 때		
5	떠나려 할 때		
6	회중을 모을 때		
가나안 땅에서(민 10:9-10) - 제사장이 볼 것			
1	대적을 치러 나갈 때		
2	희락의 날,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 3 장 Zoom in 이스라엘의 절망, 그리고 희망(민 11-15장)

◎ 강의내용

광야 행진이 가져다주는 고통에 대한 ‘불평’과 가나안 땅 정탐꾼들로 인한 ‘언약의 파기’를 다룬다. 출애굽 구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할 신앙의 길을 배운다.

그러나 광야는 결코 목적지가 아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그 땅을 맘껏 누릴 수 있는 길이 다시 한 번 제시된다. 무너진 세대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1. 다베라에서(민 11:1-3)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정을 시작하여 시내산에서 발을 떼었다. 일년 남짓 머물던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놓여져있다. 물론 광야라면 이미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에서 거쳐본 장소이다. 시내산까지 함께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다.

1) 광야행진 서론과 그 이후에 대한 암시

다베라 사건은 광야에서 출애굽 구세대가 펼칠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구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진멸되고 말 것이라는 선고를 받기까지 정확하게 세 가지 사건이 전개된다. 이 세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전체 서론	민 11:1-3	다베라 사건 - 민 11-20장 전체 서론	
1	민 11:4-35		
2	민 12:1-16		
3	민 13-14장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이 담겨 있다는 것은 결국 태초의 인간이 넘어졌던 동일한 시험이 연루되어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죄 (요일 2:16)	선악과 (창 3:6)	사탄의 시험(예수님) (마 4:1-11)

이곳의 이름이 ‘다베라’가 되었다. 이것은 ‘불이 타다’ 혹은 ‘진노가 타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지금 다베라에서 ‘여호와와 불’이 진영 끝을 사르기 시작했다.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진노의 불이 진영의 중심까지 태워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광야 여정 동안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끊고,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2. 광야의 세 가지 유혹

1)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보는 탐욕의 무덤들(민 11:4-35)

(1) 유혹의 내용

*민 11:4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2) 해결의 길

하나님의 응답(민 11:16-23)	
모세에게(11:16-17)	이스라엘에게(11:18-23)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점이 같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문제와 모세의 문제가 동일한 것이란 사실을 느껴볼 수 있다. 여호와와 영과 여호와와 바람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로 모두 여호와가 능력의 근원임을 드러내고 있다.

(3) 왜 탐욕인가?

하루 생활을 위해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만나의 양과 이스라엘이 끌어 모은 메추라기의 양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나	메추라기
(출 16:21, 민 11:9)	(민 11:31-32)
(출 16:16)	(민 11:32)
(출 16:36)	(겔 45:11)

10오멜은 [] 에바	1에바는 [] 호멜
100오멜은 [] 에바	10에바는 [] 호멜
1000오멜은 [] 에바	100에바는 [] 호멜
1000오멜은 [] 호멜	

이는 오직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의미로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10호멜이 1000오멜이나 되는 분량이라는 점에서 만나에 비하면 무려 3년 정도 먹을거리를 진영 사면에 퍼둔 것이다. 이제는 이 먹을 것 때문에라도 행진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모아두고, 쌓아두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이요, 선택되고 구별된 목적조차 실행해 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사라져 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2) 하세롯에서의 반역(민 12장)

먹을 것 다음에는 지위에 대한 욕망(탐욕)이 따라온다.

(1) 미리암의 반역(민 12:1)

또 다른 탐욕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또 다른 종류의 탐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충분히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높은 자리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위에 대한 탐욕’이다. 이렇게 지위에 대한 탐심을 품은 미리암-아론과 모세에 대한

(2) 온유함이란?(민 12:3)

여기서 온유함은 결코 타고난 성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 37:11	
* 시 37:9	
시 37:22	
시 37:29	
* 시 37:34	

(3) 미리암-아론과 모세의 차이점

민 12:7	모세는 여호와의 집에 충성
민 12:8a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함
민 12:8b	여호와의 형상을 봄

(4) 인간 탐욕의 결과는 심각하다

1	민 12:12
2	민 12:14

* 민 12:15-16

이 두 가지 탐욕이 공동체를 멈춰 세운다.(먹음직도, 보암직도) 이 두 가지의 탐욕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인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움(이생의 자랑)으로 넘어간다.

3)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반역 - 정탐꾼 사건(민 13-15장)

이스라엘은 새 역사의 정점에 서 있다. 출애굽기부터 걸어온 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가장 적합한 때라는 사실을 느껴볼 수 있다. 애굽 탈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대안이다. 홍해를 건너며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광야를 경험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철저한 준비 후에 또다시 광야를 걸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광야를 마감할 가데스바네아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알게 된다.

출 1-15장	출 16-18장	출18장-민10장	민 11-12장	민 13장 이후

이 구도를 통해 볼 때 민수기의 광야는 극히 짧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의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파견되고, 그 정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스라엘의 정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정복전쟁이 실행되었다면 민수기에서 광야여정은 11-12장 단 두 장, 즉 51절로 끝났을 것이다. 이것을 출애굽기의 광야와 비교하면 좋은 대칭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에서 명확한 광야여정의 범위가 15:22-17:16까지의 58절로 약 두 장 정도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1) 이들은 단순한 정탐꾼들이 아니다(민 13:1-3)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가?	
왜?	

(2) 이스라엘 구세대의 마지막 선택(민 13:30-14:10)

<p>A. 민 13:30</p> <p>B. 민 13:31-33</p> <p>B'. 민 14:1-5</p> <p>A'. 민 14:6-9</p> <p>*이스라엘의 결정 - 민 14:10</p> <p>*그로 인한 결과 - 민 14:11-12</p>

이들의 결정이 심각한 것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어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로써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장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간 것이다. 이들을 통해 선악과의 모든 요소가 다 이루어졌다면 결국 남는 것은 땅으로부터의 추방밖에 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은 한 마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이다.

(3) 엇갈리는 운명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 -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신뢰**

민 14:3	
민 14:8-9	

(4) 구세대의 실패와 그들을 향한 심판 선언(민 14:13-38)

출애굽 시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시려고 모세에게 선언하신다. 하지만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모세가 간구하는 용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되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 멸시 당할 것으로 인해 간구한다. 이 속에는 설사 구세대는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진멸될지라도 다음세대만큼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주제	의미
1	구세대를 향한 징계 (14:11-12)	
2	모세의 중재 (14:13-19)	
3	구원 받을 자와 심판 받을 자 (14:20-35)	
4	악평한 정탐꾼의 운명이 미래 구세대의 운명 (14:36-38)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쳐서 사십 년간 죄악을 담당할 것(14:34) - 하나님의 수백 년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		

(5) 징계선언에 대한 구세대의 반응(민 14:39-45)

회개인가, 반역인가?

3. 죽음을 뒤로하고 생명의 누림을 향하여

민수기 15장은 바로 앞에 전개된 내용과 비교하면 전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구세대의 반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사와 서원제물, 그릇 범죄 하였을 때 그것을 다루는 법 등을 제시한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후에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와는 전혀 무관한 제의에 대한 것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규례들을 지킬 장소에 대한 지적이 시작과 중심에 등장한다.

민 15:2	
민 15:18	
비교: 민 14:22-23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내용을 이곳에 기술하는 것은 분명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하나님은 아직도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민 15:2, 18)
구세대가 불순종으로 사라져가야 한다는 심판을 받은 후에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죽음이라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기대해도 좋다는 뜻이다.

절망이 되어버린 현재 (민 14:20-23)	그럼에도 미래는 있다 (민 15:2, 18)

2) 그 땅이 가져올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라는 의미(민 15:3-11)

주어진 율법의 내용이 짐승, 곡식, 기름, 포도주 등이 어우러진 그 땅에서 행할 자발적인 제사제도(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등)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의 풍요를 그리워하던 것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요, 응답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조문의 세세한 내용들은 결코 의무감의 강조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세대가 기억하는 애굽 땅 (민 11:5)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릴 풍성한 땅 (민 15:3-11, 19)

3)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란 약속의 의미

본문과 같은 법조문을 주셨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법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신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민 15:40**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세대가 이루어야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이념을 되새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인 것이다.

***민 15:41**

이러한 길을 지켜 나간다면 애굽땅으로 돌아가려는 구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선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이루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의 내용이다.

제 4 강 Zoom in 광야 40년(민 16-20장)

◎ 강의내용

드디어 구세대에게 선고된 심판인 40년의 광야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누가 생존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진영 끝부터 진노의 불이 붙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진영을 불태웠다. 이제 초점은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의 입구를 지키는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라는 지도자들의 운명이다. 광야여정의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와 진노의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는 것이다. 그 결론은 광야 40년의 징계의 출발선인 가데스바네아에서 시작하여 다시 원점인 가데스바네아에 돌아오면 드러날 것이다.

1. 광야 40년의 요약된 사건들 - 원점에서 원점으로

좋은 삶든 이제 40년 광야 여정이 내정되어 있다.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기나긴 광야 40년 여정을 민수기는 오로지 단 두 사건으로 축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사건일 것이 틀림없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과 해결 (민 16-19장)	
모세와 아론의 거역 (민 20장)	

이스라엘 구세대는 이미 무너졌다. 진영의 바깥쪽 테두리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민수기 16-19장에서는 그 안쪽을 감싸고 있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고, 마침내 민수기 20장에는 성막의 마지막 경계인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옮겨 붙어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의 원점에서 원점으로의 광야 40년 여정은 주로 성막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룩의 실패라 할 수 있다.

민 16:1-3	
민 20:12	

*‘카데스’라는 지명의 의미는? _____

2. 레위지파가 주축이 된 반역과 해결점(민 16-18장)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언제이건 신세대는 분명히 설 것이다. 그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신세대만 선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세대가 거룩해지는 것이 민수기 15장의 목표이지만 만약 이들이 성막에 가까이 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수기 16-19장은 성막에서 직임을 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구한 법을 세우는 이야기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상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내용
1	민 11-14장	
2	민 15장	
3	민 16-17장	
4	민 18-19장	

1) 레위지파가 주축이 된 반역(민 16장)

(1) 레위 자손 고라의 거역(민 16:1-11)
 왜 고라가 주동이 되어 리더십의 지위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는지는 레위의 족보를 살펴보면 추측해 볼 수 있다.

레위(출 6:16-25)					
게르손		고핫			므라리
립니	시므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
		아론, 모세	고라, 네벡, 시그리		미사엘, 엘사반 (민 3:30)
					마흘리 무시

이 족보를 통해 고라 무리의 불만을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의 말 속에 그대로 나타나며, 반역의 목적 또한 드러난다.

민수기 16:3	
A.	
B.	
A'.	

반역 이유	(민 16:3)
모세 응답	(민 16:10)
모세 결론	(민 16:11)
지위 다툼을 없애는 길	(민 16:6-7) (민 16:41-50)

(2)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거역(민 16:12-15)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또한 반역의 기치를 든다. 이들의 목표는 모세를 공격하는 것에 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는 이들의 말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민수기 16:13-14	
A.	
B.	
C.	
B'.	
A'.	

반역 이유	(민 16:13-14)
모세 응답	(민 16:15a)
모세 결론	(민 16:15b)
지위 다툼을 없애는 길	(민 16:15)

이러한 지위 다툼을 없애는 최고의 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 마 20:28

(3) 하나님의 심판(민 16:16-35)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아론과 반역의 무리 모두가 향로에 향을 피워서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향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극렬한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지금 이 선택과 심판의 장면은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반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자신의 뜻을 통해 제사장 가문을 이미 선택하셨음을 강조하고자 하신다.

주제	제사장 위임식	레위지파 고라 일당의 의도
위임식 시작	(레 8:1-4)	(민 16:19)
위임식 이후	(레 10:1-3)	(민 16:35)

(4) 이스라엘 온 회중의 반역(민 16:41-50) - 향을 사르는 직임의 의미

아론이 향을 피워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다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 감당은 죽음을 끊고 생명을 가능케 한다. 대제사장으로서는 죽음에 접촉하는 순간 부정해 진다는 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부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회중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현장까지 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절정에 이른다.

2)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위 다툼에 대한 해결점(민 17-18장)

이제 시급한 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직임의 분명한 구분과 더불어 서로가 자리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백성들까지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의 거룩은 곧 백성들의 거룩으로 연결되어 죽음이 아닌 축복의 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수기 17-18장의 구조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민수기 17-18장

A. 민 17:1-11

B. 민 17:12-13

A'. 민 18장

(1)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지파(민 17장)

민수기 17-18장

A. 민 17:5

B. 민 17:8

A'. 민 17:10

왜 살구열매일까?(렘 1:11-12)

(2)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별된 직무와 구별된 몫(민 18장)

직무의 구별은 서로가 맡은 역할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마찬가지임을 밝히고 있다.

아론과 아들들 조상의 가문(레위인) (민 18:1a)	(18:4)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아론과 아들들 (민 18:1b)	(18:3)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 (레위인이 성소의 기구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후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을 정해주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며, 또한 서로가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과 레위 족속과 제사장의 직임이 뚜렷하게 구별되며 상호 보완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를 세우기 위해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신다.

3. 죽음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물(민 19장) - 붉은 암송아지의 재

민수기 19장에서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구세대로부터 신세대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제시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부정한 힘이 그 영향력을 신세대에게 끼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길을 보여준다. 이것은 구세대의 죽음에 신세대도 같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민수기 19장의 존재 이유 (붉은 암송아지의 재)	붉은 암송아지의 재의 사용 (민 31:19, 21-24)

4. 모세와 아론의 실패(민 20장)

이스라엘 진영이 무너지고, 레위지파의 진영 또한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방패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모세이다.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뒤로하고 드디어 가데스바네아에 다시 도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며 모두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던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 40년의 세월이 이제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은 두 죽음으로 감싸여져 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20장
A. 민 20:1
B. 민 20:2-21
A'. 민 20:22-29

구세대의 중요한 대표자인 두 남녀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모세의 반역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모세의 죽음 선고 또한 들어 있다는 점에서 20장 전체는 구세대의 진멸을 상징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점을 제시한다. 우선 모세의 불순종이 분명하게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것을 지팡이로 두 번 친 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죄인지도 의문스럽다. 그리고 지팡이로 칠 것이 아니라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져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지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주셨던 명령들과 구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임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지키고 행하는데 있음 또한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모세와 아론에게서 찾고 계신 것이다.

두 모리의 비교(출17:1-7, 민 20:1-13)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직면했었고, 그곳에서도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때에는 지팡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교 내용	르비딤 - 므리바 (출애굽기 17:1-7)	가데스 - 므리바 (민수기 20:1-13)
동기	(출 17:1)	(민 20:2)
과정	(출 17:2)	(민 20:3)
공박	(출 17:3)	(민 20:4-5)
간구	(출 17:4)	(민 20:6)
응답	(출 17:5a)	(민 20:7)
명령	(출 17:5b)	(민 20:8-9)
행위	(출 17:6)	(민 20:10-11a)
결과	(출 17:6)	(민 20:11b)
징계		(민 20:12)
지명 어원	(출 17:7)	(민 20:13)

이 두 이야기는 수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거대한 반전은 한 곳에서는 지팡이로 치는 것이 순종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불순종으로 정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 5 장 Zoom in 세대교체/발람 이야기(민 21-25장)

◎ 강의내용

출애굽 세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출애굽 세대가 겪었던 경험들이 신세대의 이야기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해결된다. 동일한 과정이 되겠지만, 반응은 달라야 한다.

또한 구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져가고 이제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며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 확증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신세대의 신앙의 길은 분명 사라져가는 구세대와는 달라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1. 신세대 이야기의 시작

민수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불순종과 거역, 패배로 일관했던 구세대의 삶이 그 끝에 이르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모세의 죽음 예고가 구세대의 종국을 보여준다. 그리고 드디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구세대가 불순종으로 일관함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장소에서 신세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1) 패배에서 승리로(민 21장)

구세대	민 14:39-45	
신세대	민 21:1-3	

*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은? _____

* 이 전쟁에는 중요한 인물의 존재가 빠져있다.

‘호르마’ 사건의 중요성은 민수기 전체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세대의 광야 여정의 요약판인 ‘다베라’ 사건과 대조되는 신세대 여정의 요약판이라 할 수 있다.

민 1-10장	민 11-25장		민 26-36장
	*11:1-3	*21:1-3	

구세대의 회의적인 시작(민 11:1-3)	신세대의 희망적인 시작(민 21:1-3)
① (11:1a)	① (21:1)
② (11:1b)	② (21:2)
③ (11:2a)	③ (21:3a)
④ (11:2b)	④ (21:3b)
⑤ (11:3)	⑤ (21:3c)

2. 출애굽 구세대와 광야 신세대의 교차구조(민 21-25장)

<p style="text-align: center;">■21:1-3</p> <p>A. 21장 B. 22장 C. 23:1-24:9 B'. 24:10-25 A'. 25장</p>

3.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이야기(민 22-24장)

1) 발람과 여호와의 약속

(1) 발람의 정체

	성경	내용
1	수 13:22	
2	민 22:7, 23:23 (신 18:10)	
3	겔 21:22 (점술의 종류)	

(2) 발람 이야기의 구조(민 22:7-35)

발람 이야기는 '3+3+3'의 형태로 진행된다. 각각의 이야기가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극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 3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결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첫 번째 만남 (22:7-14)		
두 번째 만남 (22:15-20)		
나귀와의 씨름 (22:21-30)	1차(21-23절)	
	2차(24-25절)	
	3차(26-30절)	
세 번째 만남 (22:31-35)		

(3)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시고 출발하자 죽이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창 32:24-32)	모세(출 4:24-26)	발람(민 22:21-23)
하나님의 명령	(창 31:3)	(출 3:9-10, 4:21)	(민 22:20)
막으려 하심	(창 32:24)	(출 4:24)	(민 22:22)
이유	(창 32:28)	(출 4:25-26)	(민 22:35)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발람과 나귀 사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로 인해 알 수 있다.

A. 민 22:20

B. 민 22:21-30(22:29)

A'. 민 22:35

(4) 하나님의 사람과 나귀의 역할

여기 등장하는 말하는 나귀는 이 이야기를 진실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이것이 허구인가, 사실인가’의 논증보다는 그 속에 들어 있는 교훈을 바르게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창 22장)	발람(민 22장)	하나님의 사람(왕상 13장)

(5)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다(축복의 구체적인 내용)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내용 설명
1	(민 22:41-23:12, 특히 23:7-10)	
2	(민 23:13-26, 특히 18-24)	
3	(민 23:27-24:9, 특히 24:3-9)	
결 론	(민 24:10-25, 특히 15-24)	

4. 발람의 음모(민 25장)

가나안 땅의 접경지대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스라엘 구세대의 진멸은 이미 시내산 금송아지 숭배에서부터 이들을 따라다니던 운명의 덫 같은 요소였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신세대의 삶에 모압 평지에서의 바알 숭배는 또 하나의 위기를 제공한다.

내용		금송아지 숭배(출 32-34장)	바알브올 숭배(민 25장)
사건 주제			
장소와 상황			
주 요 내 용	1	(출 32:6)	(민 25:2)
	2	(출 32:28, 35)	(민 25:9)
	3	(출 32:29)	(민 25:11-13)
	4	(출 34:15-16)	(민 25:1-2) (민 25:6)
사건 해결자		(출 32:30-34)	(민 25:11) (민 25:4-6)

이처럼 21-25장은 발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람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계획하신 축복의 약속을 결코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새로운 세대에 가입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 6 장 Zoom in 인구조사②(민 26-36장)

◎ 강의내용

첫 인구조사에 든 구세대가 사라짐으로 신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들이 지켜야 할 율례들이 주어진다. 신세대의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며 여인들을 통해 신세대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바른 정신과 이념을 전한다. 그리고 정신과 이념 다음에는 신세대를 이끌 여호수아가 서고, 신세대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예배에 대하여 다룬다.

1. 신세대의 인구조사(민 26장)

구세대의 인구조사와 신세대의 인구조사의 극명한 차이점은 구세대의 것이 전적으로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에 있었다면, 신세대의 것 또한 ‘이십 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민 26:2)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1) 신세대 인구조사에서의 차이점

구세대와 신세대의 인구조사에서 르우벤 지파에 대한 내용만 비교해보아도 이 두 세대의 인구조사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구세대의 인구조사 (민 1:20-21)	신세대의 인구조사 (민 26:5-7)

구세대가 전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장정의 숫자를 세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신세대의 인구조사에서는 각 지파의 종족들을 상세하게 나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 신세대 인구조사에서 종족별 가족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내용
1	창 10장	
2	창 46:8-27	
3	민 26장	

지파의 여러 종족들은 대부분 창세기 46장에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후손들이 종족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2) 신세대 인구조사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이름

구세대 인구조사와의 차이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신세대의 인구조사에는 군인으로서 계수되는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와는 관계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인구조사의 다른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성경	내용
1	민 26:33	
2	민 26:46	

특히 지금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슬로브핫의 딸들인 다섯 명의 여인들을 므낫세의 인구조사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이 여인들을 통해 본이 되는 이야기를 거론하려는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리 짐작해 본다면, 신세대의 인구조사가 땅을 분배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의 이야기도 바로 이 약속의 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야기일 것이다.

2. 슬로브핫의 딸들이 주는 교훈(민 27:1-11)

1) 불신이 아닌 신뢰로(원망이 아닌 정중한 호소)

먼저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는 호소와 간구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그 간구는 결코 탐욕과는 거리가 먼 정당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었고, 다섯 명의 딸 밖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자손이 없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으로 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남성의 권력에 휘말려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존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단순히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가 기인한 마음의 자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자세는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구세대의 태도	신세대의 태도
*민 11:1 *민 11:4 *민 14:1-3 *민 16:12-14 *민 20:2-5	*민 27:1-4 *민 32:1-5

2) 하나님의 법의 탄력성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결코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도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사건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법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사건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정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완전을 향하는 것이다. 슬로브하트의 딸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의 법 정신으로 새로운 삶의 상황에 바르게 적용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 슬로브하트의 딸들로 인해 변화된 법의 적용점은?

새로운 상황 (민 27:4)	
법의 확장 (민 27:8-11)	

* 변화된 법으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적용점은?

새로운 상황 (민 36:1-4)	
법의 확장 (민 36:5-9)	

3) 슬로브하트의 딸들의 이야기와 신세대의 이야기

특히 슬로브하트의 딸들의 이야기는 인구조사 후에 나타나는 신세대 이야기 전체를 감싸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신세대가 걸어 나가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대의 인구조사(민 26장)
A. 민 27:1-11 B. 민 27:12-35:34 A'. 민 36:1-13

3. 이스라엘 신세대의 예배(민 28-31장)

1) 이스라엘의 규칙적인 공적예배(민 28-29장)

이스라엘 신앙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오경 속에 민수기 28-29장에 제시된 제사처럼 상세히 제물의 내용과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신세대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세대가 약속의 땅을 거부함으로 진멸이 선고된 그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가 지켜야 할 제의에 대한 법을 주셨다.

* 민 15:1-3

이제 그 일을 행할 세대가 준비된 것이다. 구세대의 죽음을 뒤로하고 광야 신세대가 일어나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제이다.

레위기 23장의 절기와 민수기 28-29장 절기의 차이점은?

공적인 예배에 대한 규정을 모든 신세대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이념을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따라 성취와 실패로 나뉠 것이다.

	시작	끝
민 28-29장	28:1-2	29:39-40

2) 개인적인 서원의 사적예배(민 30장)

여기서도 역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이념을 실현하시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대한 응답 여부를 보려는 것이다.

	시작	끝
민 30장	30:1	30:16

3) 이스라엘 예배의 실제 - 명령과 순종(민 31장)

민수기 25장의 결론으로 주어진 명령인 미디안에 대한 징계가 드디어 실행에 옮겨진다.

* 민 25:16-18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그들이 받아야할 징계를 실행케 하신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정작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 54절에서 12절 밖에는 할애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신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여 모든 정결례와 전리품 분배의 일을 잘 완수해 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경구절	내용순서		
1	31:1-12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승리		
2	31:13-18	여호와와의 율법 실행	진멸의 법	
3	31:19-24		정결의 법	
4	31:25-54		31:25-31	
			31:32-41	
			31:42-47	
			31:48-54	

그러므로 이 내용은 전쟁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야기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풀어나가는 삶의 예배라 할 수 있다. 최고의 예배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역사를 뒤바꾸는 위력이 있다.

4.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요단 동편 분배(민 32장)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진행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한다.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것이다. 모세는 이들을 심각하게 질책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수기 13-14장에 나타났던 정탐꾼 사건이 다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구세대가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그 땅에 가지 않겠다는 반역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진노한다.

그러나 사건은 부드럽게 해결된다. 그 과정은 대화를 통한 타협점과 해결점의 모색이었다. 이

대화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듣는 가운데 오해가 풀림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 세대가 자신들의 의견에 대하여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했던 모습과 정반대이다.

5. 레위인에게 분배된 성읍들(민 35장)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분배 받는 내용보다 오히려 6개의 성읍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 3개씩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는 명령에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했다.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또한 살펴볼 수 있다.

6. 슬로브핫의 딸들과 신세대의 예배(민 36장)

이제 신세대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예배하는 삶으로 마감해 이른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된다.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또한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출 3:12, 4:23, 7:16, 8:1, 20, 9:1, 13, 10:3)

출애굽기가 전하는 예배는 다음과 같다.

예배의 시작 (출 2:23-25)	예배의 완성을 향해 (출 19-24장)	예배의 완성 (출 25-40장)
* 이스라엘의 간구 (출 2:23)	* 여호와의 명령 (출 19:7, 24:3a, 7a)	* 여호와의 명령 (출 25:1-2)
* 여호와의 응답 (출 2:24-25)	* 이스라엘의 순종 결단 (출 19:8, 24:3b, 7b)	* 이스라엘의 순종 (출 40:16)

그러나 출애굽 구세대는 광야에서 이러한 예배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민수기에서 전하는 예배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예배의 시작(민 27:1-11)	예배의 완성(민 36:1-12)
*슬로브핫 딸들의 간구(민 27:1-5)	*여호와의 명령(민 36:5-9)
*여호와의 응답(민 27:6-11)	*슬로브핫 딸들의 순종(민 36:10-12)